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영어 접속사 ‘and’의 한국어  
번역유형에 관한 연구



2013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공 주 미

문학석사 학위논문

영어 접속사 ‘and’의 한국어  
번역유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공 주 미

# 공주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23일



주 심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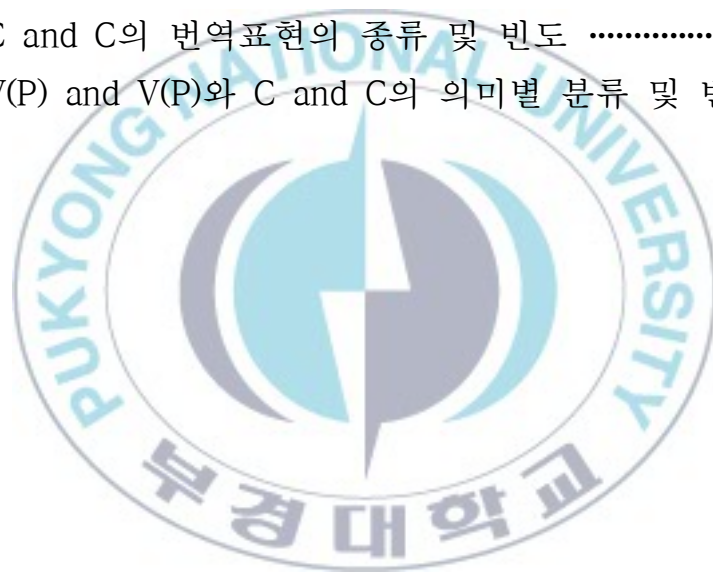
|                               |    |
|-------------------------------|----|
| 초록 .....                      | iv |
| I. 서론 .....                   | 1  |
| II. 이론적 배경 .....              | 3  |
| 2.1 영어 접속사 ‘and’의 의미 기능 ..... | 3  |
| 2.2 한국어의 접속기능소 .....          | 6  |
| III. 접속사 ‘and’의 영한 번역 .....   | 10 |
| 3.1 통사적 분류에 따른 번역유형 .....     | 10 |
| 3.1.1 N and N .....           | 11 |
| 3.1.2 A and A .....           | 14 |
| 3.1.3 Ad and Ad .....         | 16 |
| 3.1.4 V(P) and V(P) .....     | 19 |
| 3.1.5 C and C .....           | 22 |
| 3.1.6 요약 .....                | 27 |
| 3.2 의미적 분류에 따른 번역유형 .....     | 27 |
| 3.2.1 시간 순서(sequence) .....   | 28 |
| 3.2.2 부가(addition) .....      | 32 |
| 3.2.3 결과(consequence) .....   | 34 |
| 3.2.4 유사성(similarity) .....   | 38 |
| 3.2.5 설명(explanation) .....   | 39 |
| 3.2.6 양보(concession) .....    | 41 |

|                |    |
|----------------|----|
| 3.2.7 요약 ..... | 42 |
| IV. 결론 .....   | 43 |
| 참고 문헌 .....    | 45 |



## 표 목 차

|                                                 |    |
|-------------------------------------------------|----|
| <표 1> 영어 연결어의 품사별 분류 및 빈도 .....                 | 11 |
| <표 2> N and N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 11 |
| <표 3> A and A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 14 |
| <표 4> Ad and Ad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 16 |
| <표 5> V(P) and V(P)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 19 |
| <표 6> C and C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 23 |
| <표 7> V(P) and V(P)와 C and C의 의미별 분류 및 빈도 ..... | 28 |



A study on Korean Translation of English Conjunction ‘and’

Joo Mi Ko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and' in terms of syntax and semantic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finding Korean equivalents that exactly correspond to the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and'. Then, the analysis of our English-Korean parallel corpus shows that the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and' is translated into several different types of Korean construc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the connective functional elements: connecting ending, conjunctive particle, conjunctive adverb in Korean which takes a role of English coordinate conjunction 'and' with classifications of the function.

## I. 서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왔다. 태초의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분명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매우 단순하고 축소된 형태의 구성소로 사용되어졌지만 차츰 언어가 발달하면서 현재는 매우 유기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접속의 기능이다. 분리된 두 개 이상의 단어나 문장, 절을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매끄러운 언어가 생겨나게 된다. Renkema(1993)는 접속이란 이어져있는 문장이나 절이 앞 또는 뒤의 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된다고 하였고, Chomsky(1957)는 접속사의 이용은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접속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고 그렇기에 학자들에 의해 많이 논의된 것이 바로 'and'이다. 한국어에도 'and'의 역할을 하는 접속 표현이 있지만 영어처럼 하나의 단어가 아닌 연결어미, 접속조사, 접속부사 등으로 나타나거나 생략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겠다.

- (1) a. Morrie cried and laughed with them. (Morrie, p.13)  
b. 모리 교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모리, p.43) <연결어미>
- (2) a. By now the littlepeople were growing weak from hunger and stress. (Cheese, p.43)  
b. 날이 갈수록 꼬마인간들은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인해 약해졌다. (치즈, p.41) <접속조사>
- (3) a. [...]<sup>1</sup>his journey—or at least this part of his journey—

ended quickly and happily. (Cheese, p.69)

- b. [...] 갑자기 여행이— 적어도 이번 여행이— 신속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끝나버린 것이다. (치즈, p.75) <접속부사>

(4) a. Now he felt the cool breeze that was blowing in this part of the Maze and it was refreshing. (Cheese, p.57)

- b. 시원한 미풍이 미로 저쪽에서 불어왔다. [Ø]<sup>2)</sup> 신선한 바람이었다. (치즈, p.61)

예문(1)은 영어 'and'가 한국어 연결어미 '-고'로 번역되었고 (2)는 접속조사 '-과'로 번역되었으며, (3)은 접속부사 '그리고'로 번역되었다. 예문(4)에서는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어 접속사 'and'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한국어의 어떠한 유형으로 번역되는지 통사적 측면에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and'가 지닌 함축적 의미(Quirk *et al.* 1985)를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별로 어떠한 한국어 유형으로 번역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언어의 번역 형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영한 병렬 자료 Albom(1997)의 'Tuesdays with Morrie'와 그 한국어 번역본 공경희(2010)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리고 Johnson(1998)의 'Who Moved My Cheese?'와 그 한국어 번역본 이영진(2000)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렇게 총 4권을 언어분석자료로 삼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영어 접속사 'and'의 의미기능과 한국어의 접속기능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접속사 'and'를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1) 예문에서 [...]는 간략한 자료제시를 위해, 굵은 글씨체와 밑줄은 강조를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임.

2) 본 연구에서는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형태를 [Ø]표시로 대신한다.

## II. 이론적 배경

영어 접속사 'and'의 의미 기능과 한국어 접속기능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2.1 영어 접속사 'and'의 의미 기능

접속사 'and'는 등위접속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등위접속사이다. 여러 상황에서 반복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Quirk *et al.*(1985)는 접속사 'and'가 8가지의 함축된 의미(connotation)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 1) 결과(consequence or result)

후행절이 선행절의 결과로 나타난다. 선행절의 상황이 일어났기에 후행절의 사건이 발생된다. 아래와 같이 therefore를 넣었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5) He heard an explosion **and** he (therefore) phoned the police.

예문(5)는 선행절의 폭발소리가 난 상황 때문에 후행절에서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전화를 건 행동은 폭발소리가 난 상황의 결과이다.

#### 2) 부가(addition)

선행절에 대한 후행절의 순수한 부가를 나타낸다. also를 넣어보면 의미

가 자연스럽다.

(6) He has long hair **and** (also) he often wears jeans.

예문(6)은 그는 머리카락이 길고, 또한 종종 jeans를 입는다. 종종 jeans를 입는다는 사실이 후행절에서 부가되었다.

### 3) 시간 순서(sequence)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차례대로 나타나지만 두 절 사이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있지 않다. then을 넣어보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7) I washed the dishes **and** (then) I dried them.

예문(7)은 접시들을 씻고 말린 행동이 시간의 순서대로 발생되었고 두 절 사이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있지 않다.

### 4) 유사성(similarity)

선행절과 후행절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similarly를 넣어보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8) A trade agreement should be no problem, **and** (similarly) a cultural exchange could be easily arranged.

예문(8)은 무역협정이 문제가 없고 문화교류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사한 내용이 연결되었다.

## 5) 대조(contrast)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in contrast나 but을 넣어보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9) Robert is secretive **and** (in contrast or but) David is candid.

예문(9)은 Robert는 비밀스러운 데 반해 David는 솔직하다. 두 절 사이가 대조적으로 연결되었다.

## 6) 양보(concession)

선행절에 양보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후행절에서 선행절에 대한 놀라움이 느껴진다. yet이나 but을 넣어보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0) She tried hard **and** (yet or but) she failed.

예문(10)은 그녀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실패를 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후행절에서 놀라움이 느껴진다. 5)대조와 6)양보는 두 경우 다 but을 넣어도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칫 혼동될 수 있으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 7) 조건(condition)

선행절은 후행절의 조건을 나타낸다. then을 넣어보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게 연결된다.

(11) Give me some money **and** (then) I'll help you escape.

예문(11)에서는 어느 정도의 돈을 주는 경우에만 너의 도주를 도와주겠다는 조건이 나타난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주로 발견된다.

## 8) 설명(comment or explanation)

선행절에 대한 설명이 후행절에 이어진다.

(12) They disliked John — **and** that's not surprising in view of his behaviour.

예문(12)는 그들은 John을 싫어하는데 그것은 그의 행동을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후행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 2.2 한국어의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sup>3)</sup>는 낱말, 구나 절 또는 문장들을 서로 연결하는 요소들을 가리킨다. 이 기능소는 연결어미(접속어미)<sup>4)</sup>와 접속 조사로 알려진 의존

3) 한국에서는 접속사란 품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어 문법 연구 초기에는 접속사에 대한 품사 설정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현배(1989)는 단순히 부사의 하위 부류에 속하게 하려 하였고, 주시경(1910)는 접속부사를 접속사라는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려 하였으며, 이관규(1992)는 '대등구성소'와 같은 상위 범주로 칭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 속에 접속사의 설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왔지만 '학교문법통일안'이 시행되면서 접속부사가 부사의 하위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접속사 'and'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접속조사, 접속부사를 하나로 묶은 접속 기능소라 칭한 서정수(1994)의 분류를 따르겠다.

형태 뿐 아니라 접속 부사로 치던 낱말 형태도 포함한다. 이 낱말 형태들도 기능으로 보면 단 접속 기능 형태소들과 마찬가지로 문법 요소이다(서정수 1994). 각각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 1)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로서, 문장과 문장을 결합하여 접속문을 만들고, 또한 결합된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낸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 (13) a. 언니는 키가 크고, 동생은 얼굴이 예쁘다.  
b. 영희는 달을 보며 속삭인다.  
c. 돈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한다.  
d. 창호가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예문 (13)의 ‘고’, ‘며’, ‘서’, ‘다가’ 는 어간에 결합하여 다음 문장과 이어지게 하는 연결어미이다. 즉, 서술어<sup>5)</sup>의 어간에 붙어서 후행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면서 두 문장을 접속하고 있다.

## 2)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와/과’, ‘하고’, ‘(이)랑’ 등이 대칭동사 혹은 대칭형용사<sup>6)</sup>가 아닌 다른 서술어와 결합하여 둘 이상의 체언<sup>7)</sup>을 단순히 같은 자격으로

- 
- 4) 연결어미와 접속어미는 통용되나, 학교문법에서는 연결어미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로 일컫는다.  
5) 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임.  
6) 동사나 형용사의 의미론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제의 대상 둘이 있어야 함.  
i) 대칭동사: 만나다, 싸우다, 사랑하다, 친하다, 함께하다, 닮다  
ii) 대칭형용사: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접속시켜 주는 경우에 쓰인다(고영근·구본관 2008).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4) a.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b. 벼루하고 먹하고 가져오너라.  
c. 머루랑 다래랑 먹고 즐겁게 놀았다.

예문(14)의 '와/과', '하고', '(이)랑'은 둘 이상의 체언을 접속시켜주는 접속조사이다. 예문 (14)는 각 문장에서 두 명사를 접속조사 '와/과', '하고', '(이)랑'이 접속하고 있다.

### 3)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앞의 문장의 뜻을 뒤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15) a. 영수는 시인이다. 그리고 영희는 평론가이다.  
b. 나는 배가 아팠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c. 나는 밤중에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d.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e. 나는 그 애가 미웠다. 그래도 차별 대우를 하지는 않았다.

예문(15)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는 앞 문장을 의미적으로 이어 받아 뒤 문장과 연결하면서 수식하는 접속부사이다. 예문 (15)는 각 문장에서 두 문장을 접속부사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로 접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어 접속사 'and'의 의미기능과 한국어 접속기능소에 대하여

7)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성분임.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살펴보았다. 'and'로 접속된 문장이 한국어의 어떠한 접속기능소로 번역되는지 3장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접속사 ‘and’의 영한 번역

이 장에서는 본 연구 자료에서 발견된 ‘and’가 사용되어진 문장들 중에서 외래어인 경우, 의역이 되어 ‘and’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sup>8)</sup>를 제외한 120개의 문장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sup>9)</sup> 영어 접속사 ‘and’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유형과 의미로 번역되는지 알기 위하여 먼저 3.1에서는 ‘and’로 접속된 문장들을 통사적 측면에서 분류하고 그 중 V(P) and V(P)와 C and C를 3.2에서 의미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 3.1 통사적 분류에 따른 번역유형

‘and’로 접속된 문장들을 품사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5가지—N and N, A and A, Ad and Ad, V(P) and V(P), C and C<sup>10)</sup>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8) 외래어인 경우와 의역이 되어 ‘and’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는 각각 아래 i)과 ii)와 같은 예가 있다.

i) a. **Rock and roll** big band, the blues. (Morrie, p.5)

b. **로큰롤**, 빅 밴드, 블루스... (모리, p.33)

위 예문 i)의 로큰롤은 외래어로, ‘and’가 번역되어지지 않았다.

ii) a. It seemed his progress was two steps forward **and** one step backward. (Cheese, p.50)

b. 여기저기 가로놓인 장애물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치즈, p. 51)

위 예문 ii)는 의역이 되어 ‘and’로 번역되어지지 않았다.

9) ‘Tuesdays with Morrie’에서 60문장, ‘Who Moved My Cheese?’에서 60문장으로 총 120문장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10) N(Noun), AP(Adjective), Ad(Adverb), V(P)(Verb (phrases)), C(Clause)

[표1] 영어 연결어의 품사별 분류 및 빈도

| N and N       | A and A     | Ad and Ad   | V(P) and V(P) <sup>11)</sup> | C and C       | 합계            |
|---------------|-------------|-------------|------------------------------|---------------|---------------|
| 20<br>(16.7%) | 6<br>(5.0%) | 9<br>(7.5%) | 55<br>(45.8%)                | 30<br>(25.0%) | 120<br>(100%) |

'and'가 V(P)로 접속된 문장이 총 55개(45.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C and C가 30개(25.0%), N and N가 20개(16.7%)의 순서로 따르고, Ad and Ad가 9개로 7.5%의 빈도를 보였으며 A and A가 6개(5.0%)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였다.

[표1]의 5가지 유형이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번역표현으로 나타나는지 영한 병렬 언어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 3.1.1 N and N

N and N 유형은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로 번역되는 경우와 생략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각각의 토큰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N and N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접속기능소        |               |           | 생략          | 합계           |
|--------------|---------------|-----------|-------------|--------------|
| 연결어미         | 접속조사          | 접속부사      |             |              |
| 5<br>(25.0%) | 14<br>(70.0%) | 0<br>(0%) | 1<br>(5.0%) | 20<br>(100%) |

11) 5가지의 분류 중에서 다른 품사들과 다르게 V유형에서만 VP유형도 함께 발견이 되었으므로 V(P)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V유형이든 VP연결이든 번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접속기능소 중에서 접속조사로 번역된 경우가 14개(70.0%)로 가장 많았고  
연결어미로 번역된 경우가 5개(25.0%)로 나타났으며, 접속부사로의 번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생략된 경우는 1개(5.0%)가 나타났다. 빈도순으로 살펴보  
겠다.

## 1)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 중에서 접속조사가 14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하였고, 연결  
어미가 5개(25.0%)가 나타났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 ① 접속조사

접속조사로 번역된 문장 14개 모두가 '-와/과'로 번역되었다. 예문을 살  
펴보자.

- (16) a. By now the littlepeople were growing weak from **hunger**  
**and stress**. (Cheese, p.43)  
b. 날이 갈수록 꼬마인간들은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인해 약해  
졌다. (치즈, p.41)

예문 (16)은 두 명사, 굶주림과 스트레스를 대등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접속조사 '-와/과'를 이용하여 번역한 형태이다.

### ② 연결어미

연결어미로 번역된 문장 5개(25.0%) 모두가 '-고'로 번역되었다. 예문을

살펴보자.

- (17) a. They had **flashing lights and booming speakers** and Morrie would wander [...] (Morrie, p.5)  
b.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가 웅웅대는 소리 사이로 모리 교수님은 [...] (모리, p.34)

예문 (17)는 영어문장에서의 명사 연결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동사화 되어, 동사 ‘번쩍이다’와 ‘웅웅대다’가 연결어미 ‘-고’로 번역된 형태이다.

## 2) 생략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문장은 1개(5.0%)가 나타났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8) a. He has sparkling blue-green eyes, thinning silver hair that spills onto his forehead, bit ears, **a triangular nose, and tufts of graying eyebrows**. Although his teeth are crooked and his lower ones are slanted back—as if someone had once punched them in— [...] (Morrie, p.3)  
b. 빛나는 청록색 눈동자와 이마를 덮은 은발, 커다란 귀, 삼각형의 코, [Ø] 술이 많은 잿빛 눈썹, 거기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한 방 얻어맞은 듯 아랫니가 뒤쪽으로 살짝 틀어진 모습의 교수님은 [...] (모리, p.31)

예문 (18)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and’가 생략된 형태이다. 영어문장에서 여러 개의 명사가 나열된 경우에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and’가 생략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 3.1.2 A and A

A and A 유형은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로만 번역되었다. 각각의 토큰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A and A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접속기능소         |               |           | 생략         | 합 계          |
|---------------|---------------|-----------|------------|--------------|
| 연결어미          | 접속조사          | 접속부사      |            |              |
| 5개<br>(83.3%) | 1개<br>(16.7%) | 0<br>(0%) | 0개<br>(0%) | 6개<br>(100%) |

접속기능소 중에서 연결어미로 번역된 경우가 5개(83.3%)로 가장 많았고 접속조사로 번역된 경우가 1개(16.7%)로 나타났으며, 접속부사로의 번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생략된 경우도 나타나지 않았다. 빈도순으로 살펴보겠다.

#### 1)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 중에서 연결어미가 5개(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접속조사가 1개(16.7%)가 나타났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 ① 연결어미

연결어미로 번역된 문장 5개 중에서 '-고'로 번역된 경우가 4개, '-는'으로 번역된 경우가 1개로 나타났다.

아래의 ‘-고’와 ‘-는’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19) a. For all that was happening to him, his voice was **strong and inviting**, and his mind was vibrating with a million thoughts. (Morrie, p.12)  
b. 그 모든 상황에도 교수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친절했으며,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모리, p.42)

- (20) a. It was **breezy and warm**. (Morrie, p.15)  
b. 산들바람이 부는 포근한 날씨였다. (모리, p.46)

예문 (19)와 (20)은 영어문장의 형용사 연결이 연결어미 ‘-고’와 ‘-는’으로 번역된 형태이다. 예문 (19)에서는 목소리에 힘이 있고 친절한 상태를 연결어미 ‘-고’를 이용하여 대등적으로 연결하였고, 예문 (20)에서는 화자가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산들바람이 부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는’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 ② 접속조사

접속조사 1개가 ‘와/과’로 번역되었다.

- (21) a. They were becoming **frustrated and angry** and were blaming each other for the situation they were in. (Cheese, p.40)  
b. 배고픔의 강도는 더해갔고, 마음에 좌절과 분노가 생겨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치즈, p.38)

예문(21)은 영어문장의 형용사 연결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명사화되어 접속조사 '-와/과'로 번역된 형태이다.

### 3.1.3 Ad and Ad

Ad and Ad 유형은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로 번역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기타)가 나타났다. 각각의 토큰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Ad and Ad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연결어미      | 접속기능소        |              | 생략        | 기타           | 합계           |
|-----------|--------------|--------------|-----------|--------------|--------------|
|           | 접속조사         | 접속부사         |           |              |              |
| 0<br>(0%) | 1<br>(11.1%) | 6<br>(66.7%) | 0<br>(0%) | 2<br>(22.2%) | 9개<br>(100%) |

접속기능소 중에서 접속부사로 번역된 경우가 6개(66.7%)로 가장 많았고, 접속조사로 번역된 경우가 1개(11.1%)로 나타났으며, 연결어미로의 번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2개(22.2%)의 기타의 경우가 발견되었다. 빈도순으로 살펴보겠다.

#### 1)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 중에서 전체의 66.7%를 차지한 접속부사가 6개, 접속조사가 1개(11.1%) 나타났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 ① 접속부사

접속부사 6개 모두가 ‘그리고’로 번역되었다.

- (22) a. When it seemed like he had been in the Maze forever,  
his journey—or at least this part of his journey—ended  
**quickly and happily**. (Cheese, p.69)
- b. 미로 속을 영원히 헤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여행이—적어도 이번 여행이— 신속하게 그리고 행  
복하게 끝나버린 것이다. (치즈, p.75)

예문 (22)에서는 영어문장의 부사 연결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접속부사  
‘그리고’로 번역된 형태이다.

## ② 접속조사

접속조사 1개가 ‘-와/과’로 번역되었다. 이 경우에 발견된 부사는 일반적  
인 부사와는 다른 부사적 불변화사(adverbial particle)<sup>12)</sup>의 경우이다. 예문  
을 살펴보자.

- (23) a. So he hired his first home care worker who helped him  
**in and out** of the pool, and in and out of his bathing  
suit. (Morrie, p.8)
- b. 그래서 처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구해서 풀장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리고 수영복을 입고 벗을 때 도움을 받았  
다. (모리, p.38)

12) 부사적 불변화사는 특히 동사 뒤에 쓰여 위치, 동작의 방향 등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come back, break down, fall off에서 back, down, off는 모두 부사적 불변화사이다  
(Hornby 2009).

예문(23)은 영어문장의 부사 연결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명사화 된 형태이다.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때'로 번역되면서 명사를 연결하는 접속조사 '-와/과'로 번역되었다.

## 2) 기타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 외에, 부사<sup>13)</sup>로 번역된 경우 2개(22.2%)가 발견되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4) a. **Now and then**<sup>14)</sup> Haw thought about his mice friends, Sniff and Scurry, and wondered if they had found any cheese yet. (Cheese, p.40)  
 b. 허는 이따금 스티프와 스커리가 새 치즈를 찾았는지 궁금했다. (치즈, p.38)
- (25) a. To his surprise, Haw started to enjoy himself **more and more**. (Cheese, p.55)  
 b. 놀랍게도, 허는 점점 기분이 유쾌해졌다. (치즈, p.59)

13)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품사이다.(남기심·고영근 1985)

a. 꽃이 활짝 피었다.

b. 과연 그 아이는 재능이 뛰어나다.

c. 우리 학교 바로 옆이 우체국이다.

예문 a의 '활짝'은 동사 '피었다'를, b의 '과연'은 '그 아이는...뛰어나다'라는 문장 전체를, c의 '바로'는 명사 '옆'을 제한하고 있다.

14) 예문 (24)의 now and then과 (25)의 more and more는 굳은 표현(Fixed expression)으로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지만 한국 학습자 입장에서 now와 then이 'and'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위치하기 때문에 'and' 연결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문 (24)와 (25)와 같이 'and'를 사이에 두고 선후행사가 위치하는 모든 문장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예문 (24)는 now와 then이 ‘지금’과 ‘특정한 때’가 ‘and’를 기점으로 분리되어 번역되지 않고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의 의미인 ‘이따금’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되었다. (25)도 마찬가지로 more가 ‘and’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번역되지 않고 ‘조금씩 더하거나 덜하여지는 모양’의 부사인 한 단어, ‘점점’으로 번역되었다(국립국어연구원 2000).<sup>15)</sup>

### 3.1.4 V(P) and V(P)

V(P) and V(P) 유형은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로 번역되는 경우와 생략되는 경우, 그 외의 경우(기타)가 나타났다. 각각의 토큰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V(P) and V(P)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접속기능소         |           |             | 생략           | 기타          | 합계            |
|---------------|-----------|-------------|--------------|-------------|---------------|
| 연결어미          | 접속조사      | 접속부사        |              |             |               |
| 43<br>(78.2%) | 0<br>(0%) | 3<br>(5.5%) | 8<br>(14.5%) | 1<br>(1.8%) | 55개<br>(100%) |

접속기능소 중에서 연결어미로 번역된 경우가 43개(78.2%)로 가장 많았고 접속부사로 번역된 경우가 3개(5.5%)로 나타났으며 접속조사로의 번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생략된 경우가 8개(14.5%)로 나타났고 그 외의 경우(기타)가 1개(1.8%)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앞에서 살펴봤던 N and N, A and A, Ad and Ad 유형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빈도순으로 살펴본다.

15) 이후에 설명되는 각 접속기능소의 뜻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른다.

## 1)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 중에서 전체의 78.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결어미가 43개, 접속부사가 3개(5.5%)가 나타났다.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 ① 연결어미

연결어미로 번역된 문장 43개중에서 ‘-고’로 번역된 경우가 18개, ‘-(아)서’가 11개, ‘-며/면서’가 8개, ‘-다가’가 3개, 그 외 ‘-더니’, ‘-느라’, ‘-으니’로 번역되었다.

아래의 ‘-고’와 ‘-(아)서’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26) a. The New Year **came and went**. (Morrie, p.12)  
b. 새해가 오고 또 갔다. (모리, p.42)

- (27) a. Once, he **brought** a tango tape **and got** them to play it over the speakers. (Morrie, p.6)  
b. 어느 날 교수님은 탱고 음악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틀어달라고 요청했다. (모리, p.34)

예문(26)에서는 새해가 온 후에 갔음을, (27)에서는 탱고 음악 테이프를 가지고 간 후에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로 번역된 형태이다.

연결어미의 보다 다양한 예문은 3.2장에서 의미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② 접속부사

접속부사로 번역된 문장 3개 모두가 '그리고'로 번역되었다. 예문을 살펴보자.

- (28) a. I **earned** a master's degree in journalism **and took** the first job offered, as a sports writer. (Morrie, p.16)  
b. 거기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석사 학위를 땀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자리를 제의받은 직장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했다. (모리, p.45)

예문 (28)에서는 석사학위를 딴 사실과 스포츠 기자로 일했던 사실이 접속부사 '그리고'로 번역되어 병렬적으로 연결된 형태이다.

## 2) 생략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문장이 8개(14.5%) 나타났다. 예문을 살펴보자.

- (29) a. As he **started out** into the Maze, Haw looked back to where he had come from **and felt** its comfort. (Cheese, p.47)  
b. 허는 미로를 향해 출발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Ø] 그곳에 있을 때 느꼈던 평온함이 떠올랐다. (치즈, p.47)

예문(29)에서는 한국어로 번역시 두 문장 사이에 '그 곳에 있을 때 느꼈던'이 추가되어 의역되면서, 'and'가 생략되고 문장이 분리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예문 (29)과 같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의역되는 경

우에 'and'가 생략되고 문장이 분리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 3) 기타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 외에 의존명사 '채'로 번역된 경우가 1개(1.8%) 발견되었다.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30) a. They **went** to Cheese Station C, found no Cheese, **and returned** home, carrying their worries and frustrations with them. (Cheese, p.41)
- b. 창고에 가서 한 조각의 치즈도 발견하지 못한 **채** 걱정과 좌절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다. (치즈, p.39)

예문 (30)는 창고에 가서 한 조각의 치즈도 발견하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의존명사 '-채'로 연결되었다. 의존 명사 '-채'는 선행절의 상황이 후행절에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 둘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주어는 같고 서술어가 두 개인 V(P) and V(P) 유형에서 의존 명사 '-채'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 3.1.5 C and C

C and C 유형은 V(P) and V(P) 유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로 번역되는 경우와 생략되는 경우, 그 외의 경우(기타)가 나타났다. 각각의 토큰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C and C의 번역표현의 종류 및 빈도

| 접속기능소         |           |              | 생략             | 기 타          | 합 계           |
|---------------|-----------|--------------|----------------|--------------|---------------|
| 연결어미          | 접속조사      | 접속부사         |                |              |               |
| 17<br>(56.7%) | 0<br>(0%) | 2개<br>(6.7%) | 10개<br>(33.3%) | 1개<br>(3.3%) | 30개<br>(100%) |

접속기능소 중에서 연결어미로 번역된 경우가 17개(56.7%)로 가장 많았고 접속부사로 번역된 경우가 2개(6.7%)로 나타났으며 접속조사로의 번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생략된 경우는 10개(33.3%)개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우(기타)가 1개(3.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V(P) and V(P)유형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다른 유형들과 비교하여 생략된 경우의 비율이 33.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빈도순으로 살펴보겠다.

#### 1)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 중에서 전체의 반을 조금 넘는 연결어미가 17개(56.7%) 나타났고, 접속부사가 2개(6.7%) 나타났다.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 ① 연결어미

연결어미로 번역된 문장 17개중에서 '-고'로 번역된 경우가 12개, '-며/면서'가 2개, 그 외 '-(아)서', '-다가', '-는데'로 번역되었다.

아래의 '-고'와 '-며/면서'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31) a. It took him longer **and** it was more painful than usual  
to get through the Maze. (Cheese, p.49)  
b. 미로 속을 달리는 데 예전보다 더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치즈, p.50)

- (32) a. Hem didn't laugh **and** he didn't respond. (Cheese, p.45)  
b. 험은 허를 비난하며 대꾸조차 하지 않으려 들었다. (치즈,  
p.45)

예문(31)에서는 예전보다 힘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사실이 연결어미 '-  
고'로 대등하게 연결되었고, 예문(32)는 허를 비난하는 행위와 대꾸조차 하  
지 않으려 드는 행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며/면  
서'로 연결되어 번역되었다.

연결어미의 보다 다양한 예문은 3.2장에서 V(P) and V(P)와 함께 의미  
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② 접속부사

접속부사로 번역된 문장 2개 중에서 '그래서'와 '그런데'가 각각 1개씩 번  
역되었다. 아래의 '그래서'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33) a. I am taller than he is, **and** when he holds me, I feel  
awkward, older, as if I were the parent and he were  
the child. (Morrie, p.4)  
b. 난 교수님보다 키가 크다. 그래서 교수님이 껴안자 잠시 내  
가 어른이 되고 그가 아이가 된 듯한 묘한 착각에 빠진다.  
(모리, p.32)

예문 (33)에서는 내가 교수님이 키가 크기 때문에 교수님이 껴안자 내가 어른이 되고 그가 아이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결과가 나왔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부사 '그래서'로 번역한 형태이다.

## 2) 생략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문장이 10개(33.3%)로 다른 유형들과 비교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34) a. With that, Haw's fear of failing returned **and** his hope of finding New Cheese faded. (Cheese, p.41)  
b. 그 말을 듣자 허의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Ø] 조금 전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새 치즈에 대한 희망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치즈, p.39)

예문(34)에서는 'and'가 생략되고 문장이 2개로 분리되는 형태이다. 절과 절이 연결된 한 문장이 2개로 분리되면서 'and'가 자연스럽게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 3) 기타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 외에, 조사<sup>16)</sup>로 번역된 문장이

---

16) 조사란 단어 또는 그 이상의 단위에 결합하여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이다. 크게 격 조사, 보조사, 접속

1개(3.3%) 발견되었다.

- (35) a. They had flashing lights and booming speakers **and** Morrie would wander in among the mostly student crowd, wearing a white T-shirt and black sweatpants and a towel around his neck, and whatever music was playing, that's the music to which he danced. (Morrie, p.5)
- b.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가 웅웅대는 소리 사이로 모리 교수님은 하얀 티셔츠와 검은 운동복 바지를 입고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 학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무슨 음악이 나오든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모리, p.34)

예문(35)는 한국어로 번역시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가 웅웅대는 상황에, 모리 교수님이 학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는 배경장면<sup>17)</sup>을 움직임의 방

---

조사로 나눈다. (고영근, 구본관, 2008)

a. 철수가 책을 읽는다.

b. 그녀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곱다.

예문 a의 ‘가’와 ‘을’은 체언과 결합하여 그 체언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임을 표시한다. 이를 격조사라 한다. 예문 b의 ‘만’과 ‘도’는 문장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독특한 의미를 더해 준다. 이를 보조조사라 한다. 접속조사는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 17) 예문 (35a)의 영어문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전개되는 전경정보—즉, 그들은 번쩍이는 조명과 웅웅대는 스피커를 가지고 있었고, 모리는 학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는 사건의 진행—으로 표현하였지만, 예문 (35b)의 한국어문장에서는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가 웅웅대는 상황에, 모리교수님이 학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라고 하여, 사건 전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하나의 배경장면처럼 묘사한 것이다. 이처럼 담화에서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이 언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은일·김규리·정연창(2013)에서도 발견되듯이, Ikegami(1991)는 영어와 같이 ‘DO언어 유형’에 속하는 언어는 인간 행위자를 부각시켜 행위자가 사건을 하나씩 전개해나가는 식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어와 같이 ‘BECOME언어 유형’에 속하는 언어는 인간 행위자를 억제하여 사건이 한꺼번에 전개되기 보다는 일련의 사건이 하나의 배경장면인 것처럼—즉, 전체장면에 초점을 두어 상태의 연속적인 변화를 한 장면을 바라보는 것처럼—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은일·정연창(2008)이 지적했듯이, 한국어는 BECOME언어에 속하므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개별 사건이 하나씩 전개되는 것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일련의 사건을 하나의 배경장면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문 (26)과 같이 한국어로 번역시 배경장면을 중심으로 번역된 것으로 사료된다.

향을 나타내는 격조사 '-로'를 이용하여 연결한 형태이다.

### 3.1.6 요약

3.1장에서 살펴봤듯이, 영어 접속사 'and'로 접속된 문장을 품사별로 분류한 각 유형의 한국의 대응표현을 살펴보면, N and N은 접속조사 '-와/과'로, A and A는 연결어미 '-고'로, Ad and Ad는 접속부사 '그리고' 등이 나타난다. V(P) and V(P)와 C and C는 매우 흡사한 번역형태를 보이는데 두 유형 모두 대부분 연결어미 '-고', '-(아)서', '-며/면서' 등으로 번역되고, 그 외에 접속부사로 번역되거나 'and'가 생략되기도 한다. C and C 유형의 주목할 점은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한국어로 번역시 선후행절이 두 문장으로 분리되며 'and'가 생략되는 번역형태가 다수 보여졌다. 그 외 N and N이 아닌 다른 유형에서 접속조사 '-와/과'로 간혹 번역되어지는데 이 경우는 영한 번역시 품사의 명사화가 일어날 때에만 발견되었다.

### 3.2 의미적 분류에 따른 번역 유형

3.1장의 통사적 분류에서 서로 비슷한 특성을 보인 V(P) and V(P)와 C and C를 하나로 묶어 의미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V(P) and V(P)와 C and C 유형 총 83개의 문장<sup>18)</sup>을 앞서 2장에서 밝힌 Quirk *et al.*(1985)의 8가지 함축된 의미(Connotation)에 따라 분류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6가지—결과(consequence or result), 부가(addition), 시간 순서(sequence), 유사성(similarity), 양보(concession), 설명(explanation)이 발견된다. 아래의 표를

18) V(P) and V(P)유형 55개와 C and C유형 30개의 문장 총 85개 중에서 의존명사와 조사로 번역된 2개의 문장을 제외한, 접속기능소로 번역되거나 생략된 경우 83개의 문장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살펴보자.

[표7] V(P) and V(P)와 C and C의 의미별 분류 및 빈도

|                   |            |
|-------------------|------------|
| 결과<br>consequence | 20 (24.1%) |
| 부가<br>addition    | 22 (26.5%) |
| 시간순서<br>sequence  | 33 (39.8%) |
| 유사성<br>similarity | 5 (6.0%)   |
| 양보<br>concession  | 1 (1.2%)   |
| 설명<br>explanation | 2 (2.4%)   |
| 합 계               | 83 (100%)  |

시간순서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 33개(39.8%)로 가장 큰 빈도수를 보였고 부가와 결과의 의미가 각각 22개(26.5%)와 20개(24.1%)로 비슷한 빈도수로 나타났으며, 유사성의 의미가 5개(6.0%), 설명의 의미가 2개(2.4%)로 나타났으며 양보의 의미가 1개(1.2%)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 [표6]의 6가지의 의미를 지닌 영어문장이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번역표현으로 나타나는지 빈도순으로 살펴보겠다.

### 3.2.1 시간 순서

시간순서의 의미를 지닌 영어문장은 총 33개(39.8%)로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 28개(84.9%)와 생략된 경우가 5개(15.1%)로 나타났다. Lakoff(1971: 126-29)는 문장의 연결순서가 바뀌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의 'and'를 '대칭적(symmetric) and'로,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의 'and'를 '비대칭적(asymmetric) and'라 칭하였다. 비대칭 접속은 본 장의 시간 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대칭접속은 3.2.2장에서 살펴볼 부가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하겠다.

#### A.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 중에서 전체의 78.8%를 차지한 연결어미가 26개, 접속부사가 2개(6.1%) 나타났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 A-1. 연결어미

연결어미로 번역된 문장 26개중에서 '-고'로 번역된 경우가 13개, '-(아)서'가 8개, '-다가'가 4개, '-더니'가 1개로 번역되었다. 한국어에서의 시간관계 연결어미는 앞뒤의 두 사건을 시간적 관계로 이어주는 것으로 '-며, -면서, 고, -고서, -어서, -자, -자마자' 등이 있다. 「우리말본」(1989)에서는 '-며, -면서, -고, -고서, -어서'를 나열형(별림꼴)의 시간적 나열(때 별림)로, '-자'를 연발형(잇달음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양인석(1972)에서는 행위 연속 접속사라는 이름으로 '-고(서), -아(서), -면서'를 다루었다(윤평현

2005: 197).

첫 번째로, ‘-고’와 ‘-(아)서’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36) a. They pit a scope up his rear end **and** looked inside his intestines. (Morrie, p.6)  
b. 의료 기구를 등 뒤에 꽂고 내장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모리, p. 35)
- (37) a. Once, he brought a tango tape **and** got them to play it over the speakers. (Morrie, p.6)  
b. 어느 날 교수님은 탱고 음악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틀어달라고 요청했다. (모리, p.34)

예문 (36), (37)은 시간의 순서대로 선·후행절이 연결되어있다. (36)은 의료 기구를 등 뒤에 꽂은 후에 내장을 들여다 본 상황을, 예문(37)은 음악테이프를 가지고 간 후에 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시간의 순서를 연결할 때 주로 쓰이는 ‘-고’와 ‘-(아)서’로 연결하였다.

두 번째로, ‘-다가’로 번역된 형태를 살펴보자.

- (38) a. One day he was walking along the Charles River, **and** a cold burst of wind left him choking for air. (Morrie, p.6)  
b. 하루는 찰스 강가를 걷다가 찬바람이 불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리, p.34)

예문(38)은 찰스 강가를 걸었고, 그 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연결어미 ‘-다가’로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다가’를 Quirk *et al.*(1985)의 함축적 의미 분류에 따라 시간의 순서에 포함시켰지만 윤평현(2005: 293)은 연결어미 ‘-다가’

에 대해서 선행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후행절에서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전환관계 연결어미라 칭하였다.

마지막으로, ‘-더니’로 번역된 형태를 살펴보자.

- (39) a. Finally, he sat down, dropped his glasses] off his nose, **and** looked out at the young faces who stared back in silence. (Morrie, p.9)
- b. 마침내 의자에 앉자 그는 안경을 벗더니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말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모리, p.38)

예문(39) 역시 시간의 순서대로 연결된 형태이다. 그가 안경을 벗은 후에 젊은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작을 연결어미 ‘-더니’로 연결하여 번역하였다. 송재목(2007)은 ‘-더니’는 전형적인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차적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고 서정수(1994: 1139)는 두 사건이나 상태가 시간적 접속관계를 가지고 일어남을 나타내는 데에 이 형태가 쓰인다고 하였다.

## A-2. 접속부사

접속부사 ‘그리고’로 2개(6.1%)의 문장이 번역되었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40) a. Then, he took a deep breath, turned right into the Maze, **and** jogged slowly, into the unknown. (Cheese, p.49)
- b. 그는 깊은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미로를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천천히 달려나갔다. (치즈, p.49)

예문(40)에서 그는 깊은 숨을 크게 들이쉬 후 천천히 달라나갔다. 두 문장이 시간의 순서대로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되어 번역되었다.

## B. 생략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경우 5개(15.1%)가 나타났다. 예문을 살펴보자.

- (41) a. He chose a date. **And** on a cold Sunday afternoon, he was joined in his home by a small group of friends and family for a "living funeral." (Morrie, p.12)
- b. 그는 주변에 전화 몇 통을 건 후 낱자를 잡았다. [Ø] 어느 추운 일요일 오후,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살아 있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모리 교수님 댁에 모였다. (모리, p.43)

예문(41)은 낱자를 잡은 후에 모두 모리 교수님 댁에 모였다. 앞뒤로 자리한 두 문장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and’가 생략되고, 문장이 분리된 형태이다.

## 3.2.2 부가

부가의 의미를 지닌 영어 문장은 총 22개(26.5%)로, 한국어로 번역시 모두 접속기능소로 번역되었다.

### A.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문장 중에서 연결어미가 21개(95.5%)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였고 접속부사가 1개(0.5%) 나타났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 A-1. 연결어미

연결어미로 번역된 문장 21개중에서 '-고'로 번역된 경우가 11개, '-며/면서'로 번역된 경우가 10개로 나타났다. 최현배(1989)는 '-고'와 '-며/면서'의 관계를 별립 관계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동사구 접속, 즉 어미에 의해서 접속되는 접속문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로 구성된 접속문과 '-며/면서'로 구성된 접속문은 그 논리적 관계가 실제로 유사해서 서로 대치해 넣어도 논리적 관계에 별로 지장을 가져 오지 않는다(권경희 1990: 187).

아래의 '-고'와 '-며/면서'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42) a. "I don't have any Cheese **and** I don't know where I am going." (Cheese, p.47)  
b. "나는 치즈도 없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데." (치즈, p.47)
- (43) a. Haw just shook his head in disappointment **and** reluctantly went back out on his own. (Cheese, p.61)  
b. 허는 실망해서 고개를 흔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다. (치즈, p.65)

예문(42)와 (43)에서는 선행절에 대한 후행절의 순수한 부가가 나타난다. 예문(42)는 치즈가 없는 현실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현실

의 의미가 부가되면서 연결어미 ‘-고’로 연결되어 번역되었고, 예문(43)는 빙빙도는 동작에 트위스트를 주는 동작이 부가되면서 연결어미 ‘-면서’로 번역된 형태이다.

## A-2. 접속부사

접속부사 ‘그리고’로 1개(0.5%)가 번역되었다. 예문을 살펴보자.

- (44) a. I earned a master's degree in journalism **and** took the first job offered, as a sports writer. (Morrie, p.16)  
b. 거기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석사 학위를 땀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자리를 제의받은 직장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했다. (모리, p.45)

예문(44)은 석사학위를 딴 사실에 스포츠 기자로 일한 사실이 부가되면서 접속부사 ‘그리고’로 연결된 형태이다.

## 3.2.3 결과

결과의 의미를 지닌 영어 문장은 총 20개(24.1%)로,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가 각각 10개씩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시간순서와 부가의 의미는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가 월등히 많았던 반면에 결과의 의미는 접속기능소와 생략된 경우의 빈도수가 같게 발견되었다.

## A.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 10개 중에서 연결어미가 9개(45.0%), 접속부사가 1개(5.0%) 나타났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 A-1. 연결어미

연결어미로 번역된 문장 9개 중에서 ‘-(아)서’로 번역된 경우가 4개 나타났다, ‘-고’로 번역된 경우가 3개, 그 외에 ‘-느라’와 ‘-으니’로 번역되었다. 시간의 순서와 부가의 의미에서는 ‘-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지만 결과의 의미에서는 ‘-(아)서’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권재일(1983: 10)이 ‘-(아)서’, ‘-느라’, ‘-으니’를 선행문과 후행문이 인과관계에 있는 접속문 어미들이라 말한 것과 상통한다. 이로써 ‘-(아)서’가 한국어에서 결과의 의미를 함축할 때 자주 쓰이는 연결어미임을 알 수 있다. 연결어미 ‘-고’는 ‘-(아)서’와 함께 원인이나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유도하는 연결어미이나 ‘-(아)서’가 문장 안에서 더욱 강한 결속성을 가진다(권경희 1990: 190).

먼저 ‘-(아)서’와 ‘-고’로 번역된 형태를 살펴보자.

- (45) a. [...] but Hem's fear had turned into anger **and** he wouldn't listen. (Cheese, p.45)  
b. [...] 험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서) 허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치즈, p.44)
- (46) a. The lab report came back suggesting a neurological problem, **and** Morrie was brought in for yet another series of tests. (Morrie, p.7)  
b. 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는 입원까지

해 가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모리, p.35)

예문 (45), (46)은 모두 후행절이 선행절의 결과로 나타난다. (45)는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연결어미 ‘-(아)서’로 번역하였고, (46)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입원하며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연결어미 ‘-고’로 번역한 형태이다. 두 경우 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다.

다음으로 ‘-느라’와 ‘-으니’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47) a. The Littlepeople had difficulty sleeping **and** were having nightmares about not finding any Cheese. (Cheese, p.41)  
b.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느라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치즈, p.39)
- (48) a. He tried them **and** found that they were delicious. (Cheese, p.59)  
b. 먹어보니 맛이 있었다. (치즈, p.63)

예문 (47)은 악몽 시달렸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연결어미 ‘-느라’로 번역한 형태이고, (48)은 먹어본 결과 맛이 있었음을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로 번역되었다. 두 경우 다 후행절이 선행절의 결과를 나타낸다.

## A-2. 접속부사

접속부사 ‘그래서’로 1개(5.0%)의 문장이 번역되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49) a. I am taller than he is, **and** when he holds me, I feel awkward, older, as if I were the parent and he were the child. (Morrie, p.4)
- b. 난 교수님보다 키가 크다. 그래서 교수님이 껴안자 잠시 내가 어른이 되고 그가 아이가 된 듯한 묘한 착각에 빠진다. (모리, p.32)

예문(49)<sup>19)</sup>에서는 내가 교수님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교수님이 껴안자 내가 어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종속절인 앞 문장을 주절인 뒤 문장과 연결하기 위하여, 앞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이는 접속부사 ‘그래서’로 번역하였다.

## B. 생략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0%로, 10개가 나타났다. 다른 의미 유형들과 비교하여 생략되는 경우가 가장 큰 빈도수를 보인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50) a. He looked to his right, to the part of the Maze where he had never been, **and** felt the fear. (Cheese, p.49)
- b. 허는 오른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Ø]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치즈, p.49)

예문 (50)에서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두려운 마음

19) 예문(49)는 3.1장의 C&C유형의 (33)번 예문에서 다루었던 문장이다. 본 연구는 3.1장에서 품사별로 분류된 C&C와 V(P)&V(P) 유형을 본 장에서 다시 의미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은 번역형태의 문장은 반복되어 제시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 생기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and'가 생략되어 문장이 분리된 형태이다.

### 3.2.4 유사성

유사성의 의미를 지닌 영어 문장은 총 5개(6.0%)로,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3개와 생략된 경우 2개가 나타난다.

#### A.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문장 3개(60%) 모두가 연결어미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 A-1. 연결어미

연결어미로 번역된 문장 3개 모두 '-고'로 번역되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51) a. Such fearful beliefs were immobilizing **and** killing him.  
(Cheese, p.47)  
b. 두려움이 그 자신을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만들고 무기력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치즈, p.47)

예문(51)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행절에서 두려움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든 사실과 후행절에서 두려움이 공포를 느끼게 한 사실이 서로 유사성을 띤다. 유사한 두 의미를 연결어미 '-고'로

연결한 형태이다.

## B. 생략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경우 2개(40%)가 나타났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52) a. With that, Haw's fear of failing returned **and** his hope of finding New Cheese faded. (Cheese, p.41)  
b. 그 말을 듣자 허의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Ø] 조금 전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새 치즈에 대한 희망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치즈, p.39)

예문(52)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행절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과 후행절의 새 치즈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로 유사성을 보인다.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and'가 생략되어 문장이 분리된 형태이다.

### 3.2.5 설명

설명 의미 지닌 영어 문장은 2개(2.4%)로,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으로 번역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가 각각 1개씩 나타났다.

#### A. 접속기능소

접속기능소로 번역된 경우 1개(50%)가 연결어미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 A-1. 연결어미

연결어미 1개가 '-고'로 번역되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53) a. He was a short, handsome man with a thick mustache,  
and I was with him for the last year of his life, living  
in an apartment just below his. (Morrie, p.15)
- b. 외삼촌은 키가 작고 콧수염을 기른 미남이었는데 같은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살던 나는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했다. (모리, p.45)

예문 (53)은 약간 변형된 형태의 설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절에 대한 설명이 후행절에서 이어지는 데 반하여 예문 (53)은 후행절에 대한 설명이 선행절에서 먼저 드러난다. 같은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살던 나는 그, 즉 외삼촌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했는데 그러한 외삼촌에 대하여 후행절에서 키가 작고 콧수염을 기른 미남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선행절에서 상황을 도입하고 후행절에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어미 '-는데'로 번역한 형태이다(윤평현 2005: 239).

#### B. 생략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문장 1개(50%)가 나타났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54) a. Now he felt the cool breeze that was blowing in this part of the Maze **and** it was refreshing. (Cheese, p.57)  
b. 시원한 미풍이 미로 저쪽에서 불어왔다. 신선한 바람이었다. (치즈, p.61)

예문(54)에서는 선행절에 대한 설명이 후행절에 이어진다. 미로 저쪽에서 불어온 시원한 미풍에 대한 설명을 후행절에서 신선한 바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and'가 생략되고, 문장이 분리되면서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바로 뒤에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굳이 접속기능소의 역할이 필요치 않아 'and'가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2.6 양보

양보의 의미를 지닌 영어 문장은 1개(1.2%)만 발견되었고, 한국어로 번역시 접속기능소의 접속부사로 번역되었다.

#### A. 접속기능소 — 접속부사

접속기능소의 접속부사 '그런데'로 번역된 문장 1개(100%)가 발견되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55) a. I have been teaching this course for twenty years, **and** this is the first time I can say there is a risk in taking it, because I have a fatal illness. (Morrie, p.9)  
b. 나는 20년간 사회심리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들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모리, p.39)

예문(55)는 선행절에 양보의 의미가 담겨있다. 선행절의 20년 동안 사회심리학을 가르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후행절에서 하겠다는 내용에서 놀라움이 느껴진다. 이를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부사 '그런데'로 번역한 형태이다.

### 3.2.7 요약

3.2장에서 살펴봤듯이, 'and'로 접속된 문장을 Quirk *et al.*(1985)의 함축적 의미(connotation)에 따라 분류하여 각 의미별로 대응되는 한국어 번역표현을 살펴보면, 시간순서의 의미는 연결어미 '-고', '-(아)서', '-다가' 등으로 대응되고, 부가의 의미는 연결어미 '-고', '-며/면서'로, 결과의 의미는 '-(아)서', '-고', '-느라', '-으니'로 대응된다. 유사성의 의미는 모두 '-고'로 대응되고, 설명의 의미는 연결어미 '-는데'로, 양보의 의미는 접속부사 '그런데'로 대응되었다. 모든 의미에서 연결어미 '-고'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연결어미 '-고'가 지닌 의미의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유형과 달리 결과의 의미에서만 '-(아)서'가 '-고'보다 큰 빈도수로 번역되어져 연결어미 '-(아)서'는 'and'의 결과의 의미와 정확히 대응함이 드러났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 접속사 'and'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유형과 의미로 번역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and'로 접속된 문장은 한국어로 번역시 연결어미, 접속조사, 접속부사로 구성된 접속기능소로 번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간혹 의존명사와 같은 품사로 번역되거나 아예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는다. 'and'로 접속된 문장들을 품사별로 분류하여 한국어 대응표현을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데, N and N 유형은 접속조사로, A and A는 연결어미로, Ad and Ad는 접속부사로 주로 번역되어진다. V(P) and V(P)와 C and C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달리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연결어미, 접속조사, 접속부사의 다양한 접속기능소로 번역되거나 생략되는 등 서로 비슷한 번역형태를 보인다.

두 번째로, 'and'로 접속된 문장들을 Quirk *et al.*(1985)의 함축적 의미(connotation)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시간순서의 의미를 지닌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그 뒤로 부가와 결과의 의미가 비슷한 빈도수를 보이며 그 외에 유사성, 설명, 양보 등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문장들의 한국어 대응표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결어미 '-고', '-며/면서' '-(아)서' 등으로 번역되는데, 그 중에서도 '-고'가 가장 큰 빈도수를 차지하며 각각의 의미문장에서 고루 발견된다. 이는 연결어미 '-고'가 지닌 의미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실제적으로 'and'를 대신할 만한 한국어의 대응표현은 접속기능소 중에서 연결어미 '-고'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영어에서는 'and'라는 한 단어가 접속사로서 각종 품사를 연결하고 여러 의미를 함축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접속기능소이고 연결어미, 접속조사, 접속부사가 그 기능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제한된 영한 병렬코퍼스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므로 이를 일

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차후에 보다 넓고 일반화된 규칙을 발견하기를 기대해본다.



## 영한 병렬언어자료

- 공경희. (역) 2010.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파주: 살림출판사
- 이영진. 2000.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서울: 진명출판사
- Albom, M. 1997. *Tuesdays with Morrie*. New York: Anchor Books.
- Johnson, S. 1998. *Who moved my cheese?* Vermilion: Ebury Publishing.

## 참고 문헌

- 고영근,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경기도: 집문당.
- 국립국어연구원. 2000.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권경희. 1990. 연결어미로 구성된 현대 국어 접속문. 「언어와 언어교육」 5, 185-203.
- 권재일. 1983. 현대국어의 접속문 어미 연구: 특히 시상법과 관련하여. 「언어학」 6, 3-19.
- 김은일, 김규리, 정연창. 2013. ‘-고 있다’의 영어번역 유형과기능문법적 설명. 「새한영어영문학」 55(2), 1-18.
- 김은일, 정연창. 2008. 한국어 ‘되다’ 구문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기능문법적 설명. 「언어과학」 15(3), 61-82.
- 남기심, 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 송재목. 2007. '-으니'와 '-더니', '-있더니'의 의미기능: 접속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4, 185-212.
- 양인석. 1972.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2), 1-25.
- 윤평현. 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이관규. 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최현배. 1989.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황화상. 2012.. 「국어 조사의 문법」. 서울: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Ikegami, Y.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 on Japanese Culture*, 285-326. Amsterdam: John Benjamins.
- Lakoff, R. 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Fillmore, & Langendoen.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114-149.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Renkema, J. 1993. *Discourse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 Hornby, A.S. 2009.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Group, Ltd.